

<Quarterly Report>

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

[2020 – Vol. 2]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참여 연구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외건설협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목 차 ~~

I.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1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1
2. 지역별 시장 동향	2
3. 공종별 시장 동향	10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12
1. 거시지표	12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17
3. 글로벌 PPP 시장 동향	20
III. 해외건설 수주 진단	23
1. 수주추이 및 특징	23
2. 지역별 수주 동향	24
3. 공종별 수주 동향	26
IV. 정책제언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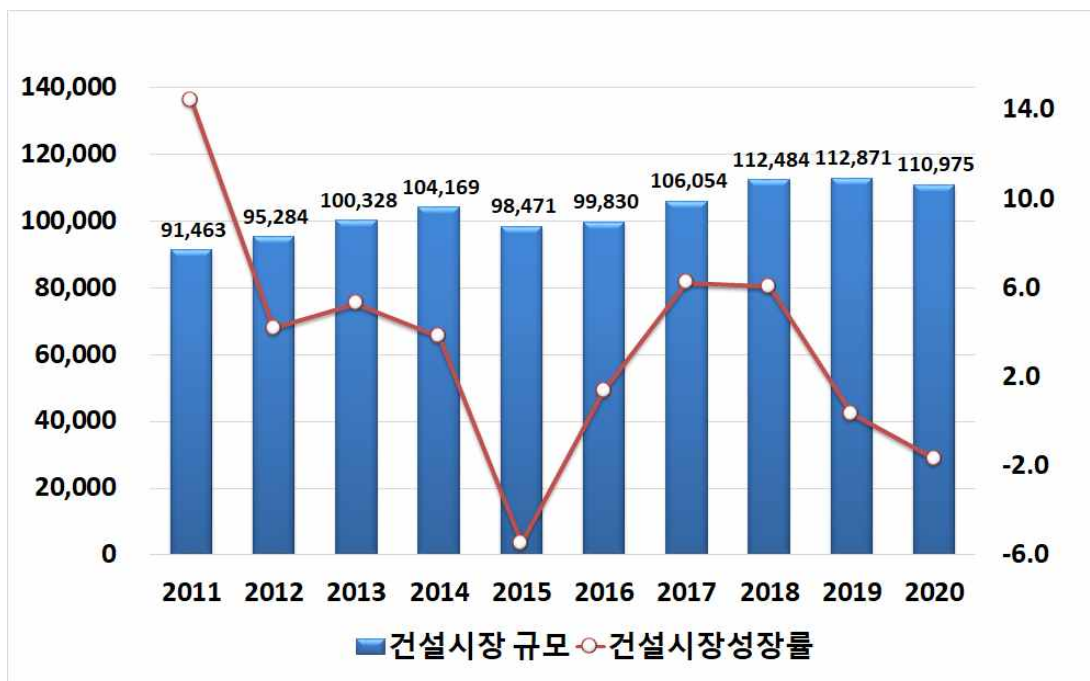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 2020년 세계건설시장규모(Global construction spending)는 코로나 19 대유행(Pandemic) 및 이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1.7% 감소한 11조 975억불로 전망
- 코로나 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시행 중인 사업장 폐쇄 및 이동 제한 등을 포함하는 검역·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급 충격 등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 현장 노동력, 주요 자재 및 장비의 현장 조달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 '20년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 5.6조불(전년대비 1.2%), 중동 0.5조불(-2.8%), 아프리카 0.1조불(-1.2%), 북미·태평양 1.8조불(-4.2%), 중남미 0.5조불(-9.8%), 유럽 2.6조불(-4.3%) 수준

- 세계건설시장 전망(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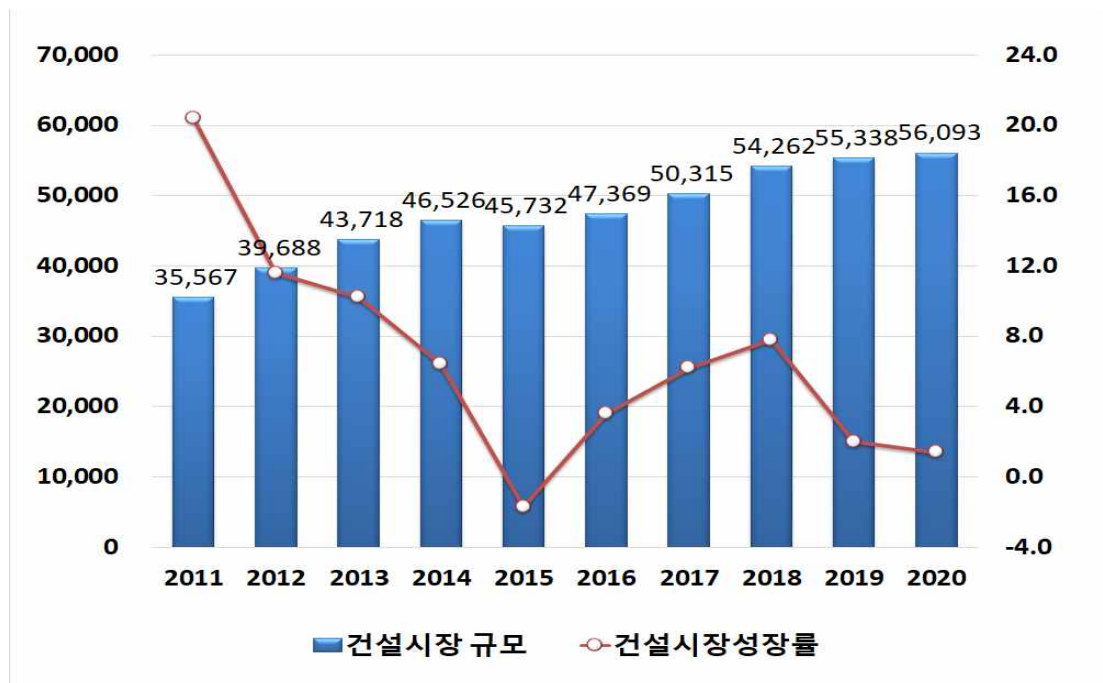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2. 지역별 시장 동향

- (아시아) 세계건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5조 6,093억불로 전망
 -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남아시아의 경우 대유행 시 국내총생산(GDP)이 2% 감소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는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고 세계 무역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
 - 이들 지역 정부들은 재정 부양책, 특히 관광 및 항공 산업을 지원하고 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 조절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一帶一路, Belt Road Initiative, BRI) 추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도로 및 수력발전소, 스리랑카의 일부 항만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 말레이시아에서는 금리가 2.5%로 역대 최저치로 48억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중이나 주택시장은 이미 건축비 상승, 노동력 부족, 막대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싱가포르의 가게, 기업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338억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어 향후 추이 주시 필요
 - 인도에서도 노동력 불용, 원자재 조달 지연 등이 예상되나, 2020년 하반기까지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원유 순수입국으로서 국가 주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도정부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의 완공을 위해 사업 관련 금리를 인하했으며, 3월 말에는 230억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인도 부동산개발협회(Confederation of Real Estate Developers' Associations of India, CREDAI)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률이 30%로 급감했으며 주정부들의 폐쇄 조치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2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패키지는 지난 2.25일 발표된 7억 2,500만불 규모로 관광, 항공,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81억불 규모의 두 번째 재정 패키지에는 법인세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도 포함되어 있음(지난 해 정부 예산 중 도로 2,271.3km, 철도 노선 신설 615.1km, 4개의 공항 건설을 발표했으며, 이는 284억불에 달함)

- 아시아건설시장 전망(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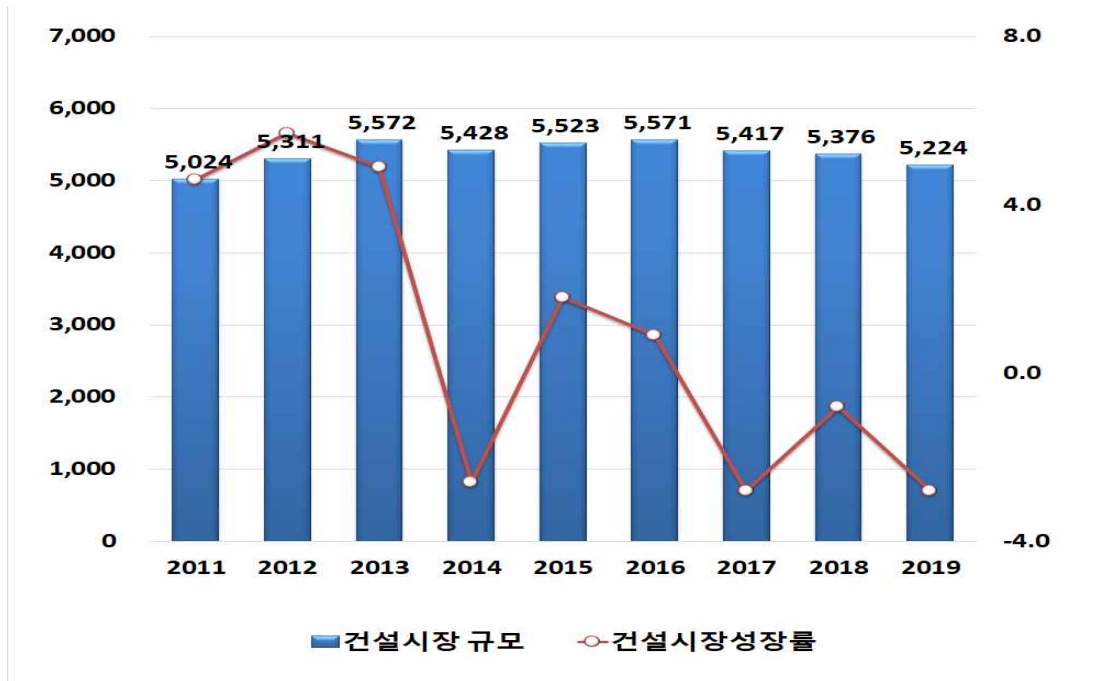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중동) 세계건설시장의 4.7%를 점유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5,224억불 규모로 전망
 -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주요국은 내수와 무역 전반의 부진, 생산 차질, 재정 긴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제유가 급락은 주요 산유국의 재정 부담을 일으키고 있어 건설 분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중국발 수입품의 납기 지연, 인력 이동의 제한 등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정부는 엑스포 2020 및 월드컵 2022와 관련된 인프라는 계속 진행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나 사우디아

라비와 및 쿠웨이트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은 유가 하락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및 예방 조치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133억불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준비했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추진 중인데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채는 GDP 대비 6% 수준에서 9%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아랍에미리트는 기업 지원을 위해 343억불 규모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분야 지원에 투입될 예정
- 사우디 재무부는 정부 기관들에게 올해 지출을 20~30% 줄이는 제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로 인해 프로젝트 계약 지연이 우려되며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네옴 신도시(5,000억불),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시티(5,000억불), 홍해개발(100억불) 등 스마트시티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재정균형유가가 80불/배럴 수준인 사우디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데 특히 아람코는 해외 다운스트림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내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자본 지출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아람코는 지난 3.19 원유 수출 잠재력 향상을 위해 4~5월경 자국 정유공장에서 조업 감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카타르는 주식시장 등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206억불 규모의 경제 보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North Field Expansion(NFE) 사업을 토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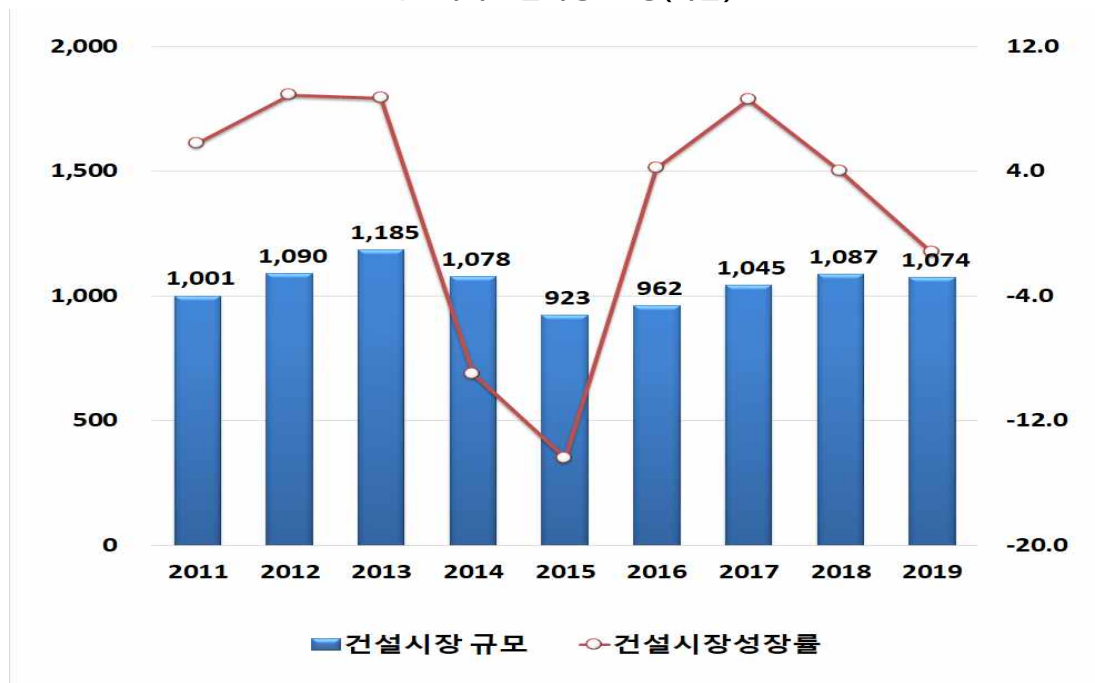
- 중동건설시장 전망(억불) -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아프리카) '20년 2020년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성장률 -1.2%, 시장규모는 1,074억불로 전체 시장의 1.0% 수준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역 경제 활동과 투자 경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나,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중국으로의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단기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야기함
- 단,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면 연평균 7%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 송배전 사업, LNG 프로젝트의 발주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 아프리카건설시장 전망(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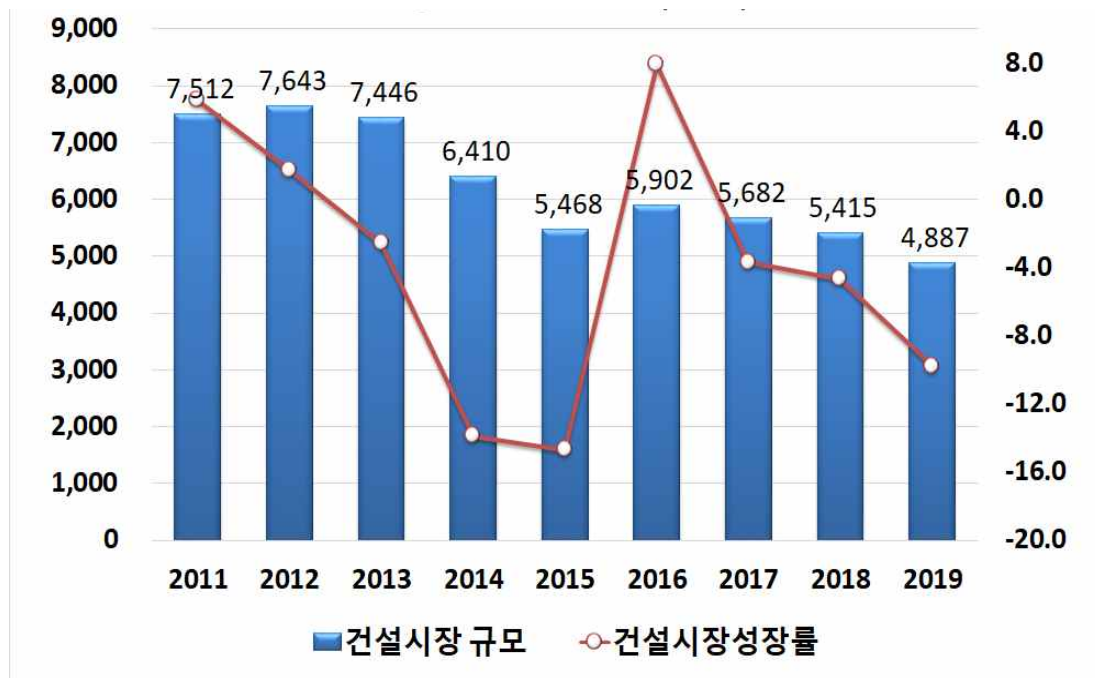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중남미)** 중남미 건설시장은 지난 2년(2017, 201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3.6%, -4.3%)에 이어 올해는 -9.8%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장규모는 4,887억불로, 전체 시장의 4.4%를 점유할 전망
-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인 4.25%로 인하, 정부는 약 300억불 규모의 자금을 풀어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지난 3.23 기업이 최대 4개월 동안 무보수로 직원 정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 콜롬비아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하락이 겹쳐지면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실물 경제 전반에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콜롬비아는 향후 4년동안 약 52만채의 저가 주택 건설을 계획중으로 자국 통계청에 의하면, 주택승인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개발사업(Viviendas de Interest Social, VIS)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예상됨)

- 칠레도 코로나19 확산 및 구리 가격 급락으로 정부 수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118억불의 경기 부양책(특별실업보험펀드에 20억불, 중소기업 대상 5억불 대출 추진 등)을 시작했는데, 이는 GDP의 4.7% 수준임. 하지만 지난 10월에 시작된 시위가 안정화되고, 코로나 19가 진정세로 돌아서면 2021년부터 주택, 병원, 교통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페루에서도 3.15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건설사업 중단, 기업 폐쇄 등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Freeport-McMoRan Inc., Cerro Verde와 같은 주요 광산기업은 조업을 중단했으며 수출의 28%, 구리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둔화는 페루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작년에 비즈카라 정부는 52개의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300억불 수준으로 리마의 새로운 순환도로, 리마 2호선, 산마틴 항만 터미널, 호르헤 차베스 공항 확장 등의 사업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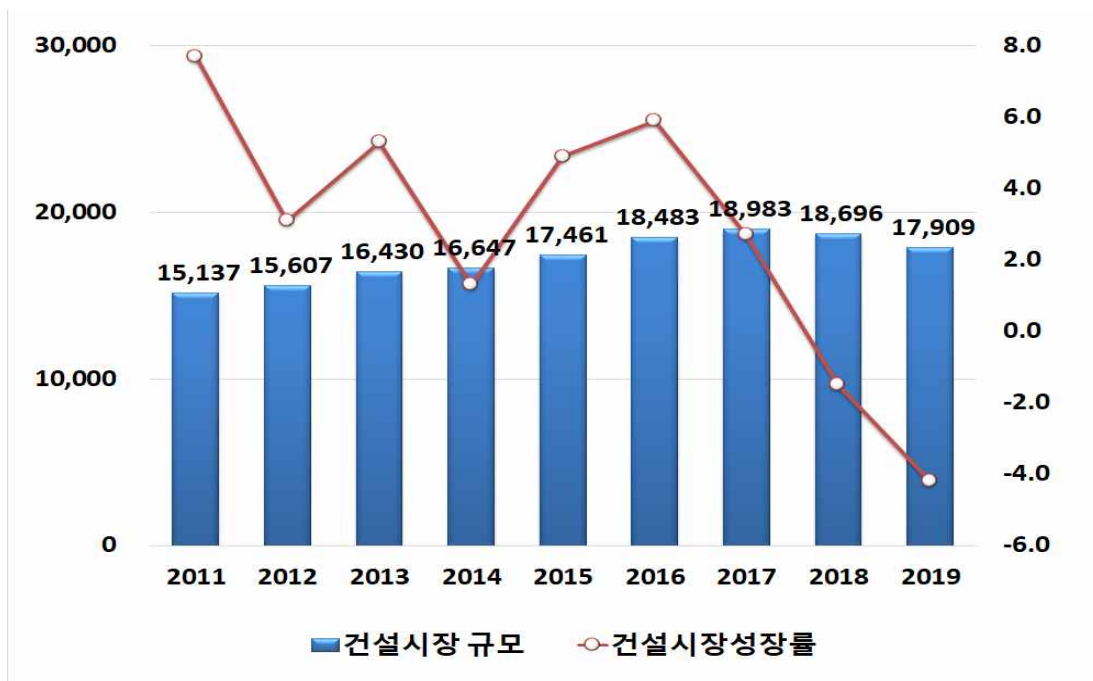
- 중남미건설시장 전망(억불) -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북미·태평양) 세계에서 16.1%를 차지하는 북미·태평양지역 시장규모는 1조 7,909억불로 전년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과감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개발사업자들, 특히 주택 건설사업자들은 경제 활동 약화 및 실업을 증가로 인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의 급격한 둔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거, 에너지, 교통과 같은 다른 부문들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임
- 코로나 19가 억제될 경우, 2020년 하반기에는 지난 3.25 미국 상원에서 승인한 2조불 수준의 경기부양책은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로 교통 인프라,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며 주택시장 회복도 전망됨
- 캐나다 정부도 3.18 경제적 타격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5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호주 건설시장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속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업체의 수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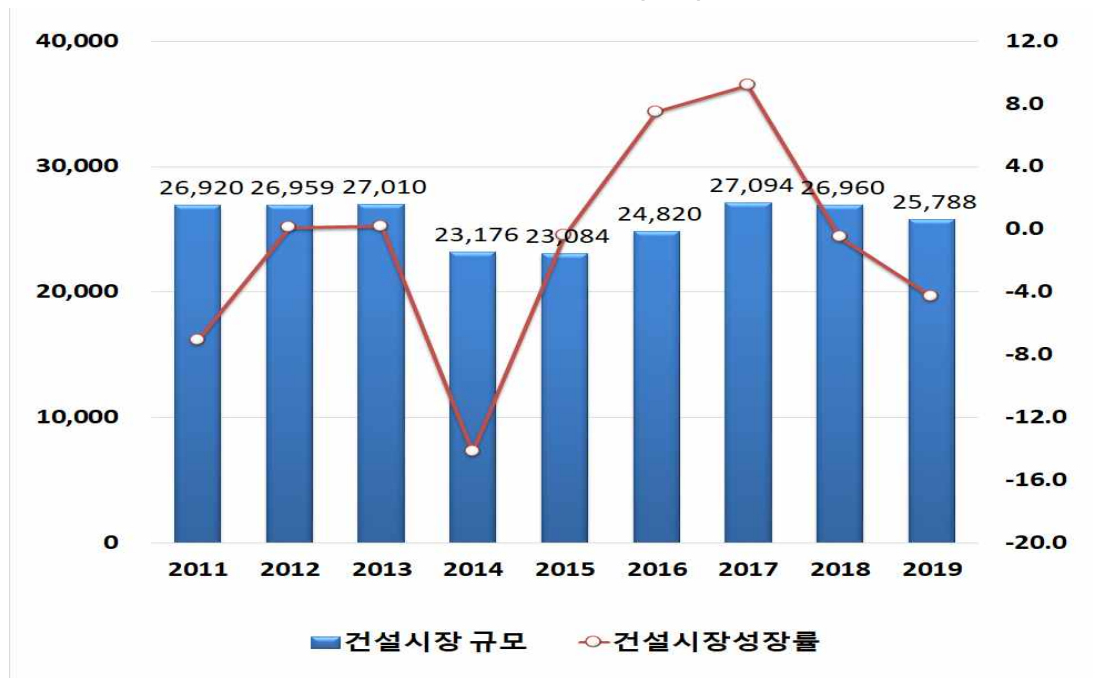
- 북미·태평양건설시장 전망(억불) -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유럽) 2020년 유럽 건설시장은 - 4.3%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규모는 2조 5.788억불로 전체 시장의 23.2%를 차지
- 미국에 이어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가장 많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유럽건설시장 전망(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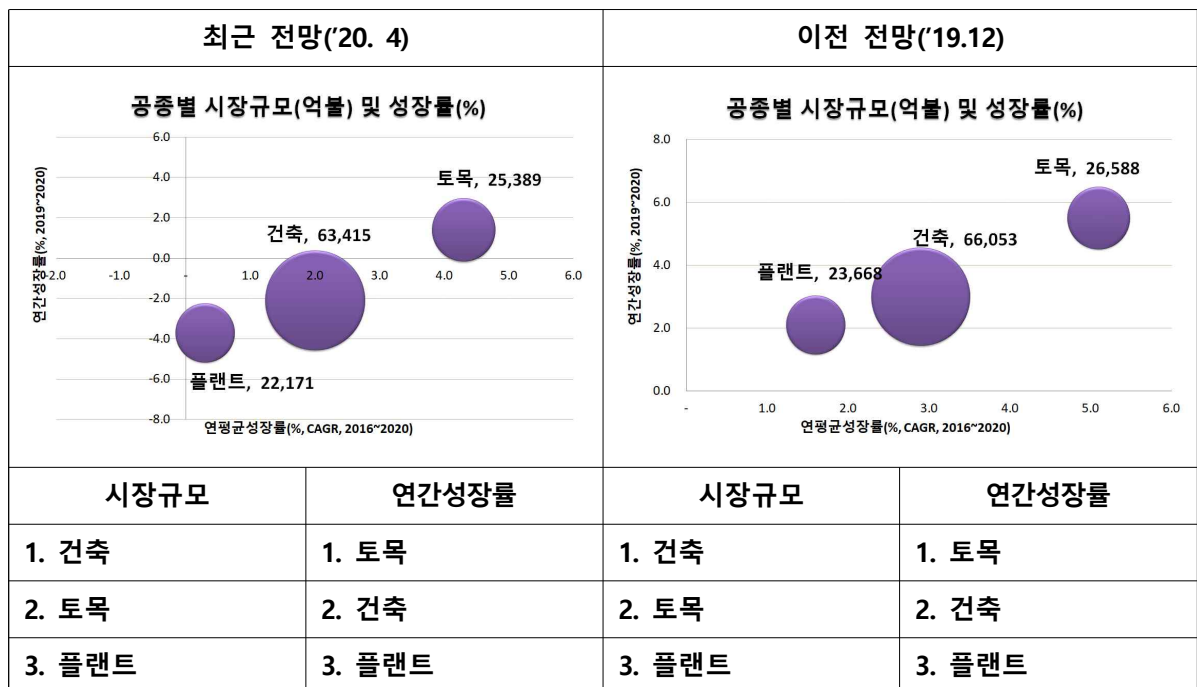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이탈리아 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격화되면서, 이탈리아 북부 내 상업 시설이 폐쇄된 상황으로 이탈리아건설협회(Associazione Nazionale Costruttori Edili(ANCE))는 정부에 모든 건설 현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현재 건설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건강과 안전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
- 프랑스건설협회는 건설업계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명령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프랑스 내 공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프랑스 최대 건설기업인 방시그룹(Vinci Group)은 국가 폐쇄가 선언된 국가에서는 "원격 업무를 위한 환경을 즉시 구현했다"고 밝혔으나 공항 및 고속도로 운영사업에서도 타격을 입고 있음(매출의 60%가 발생하는 프랑스 내 수많은 현장을 폐쇄함)

3. 공종별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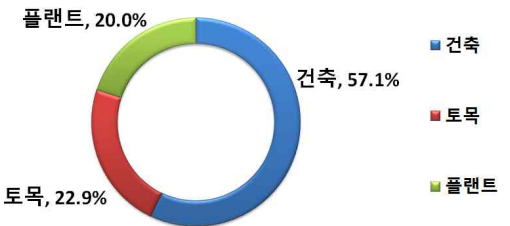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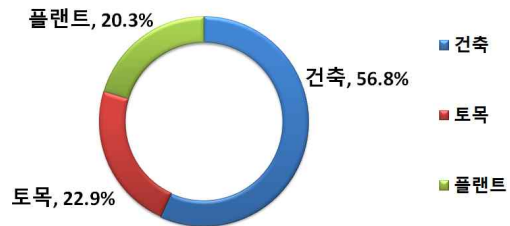
- 플랜트, 토목, 건축 등 3개 공종 모두에서 시장규모, 성장률, 연평균성장률이 이전 전망치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전체 성장률 전망치 감소폭인 5.1%보다 감소폭이 큰 부문은 플랜트 공종으로 성장률 감소폭은 5.8%수준임
- **(플랜트)** 전체 시장의 20.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시장의 축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지난 해 우리 해외건설수주의 48.7%를 차지한 플랜트 시장은 이전 성장률 전망치 2.1%에서 -3.7%로 조정되었으며, 감소폭은 5.8%로 건축, 토목의 성장률 전망치 감소폭인 5.1%, 4.1%보다 높음
 - 지난 해 108.7억불(점유율 48.7%), 올해 1분기 기준 66.9억불(60.4%)을 수주하며 전체 수주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공종별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공종별 비중(%) -

최근 전망('20. 4)		이전 전망('19.12)	
<p>공종별 시장 비중</p>  <p>플랜트, 20.0%</p> <p>토목, 22.9%</p> <p>건축, 57.1%</p> <p>■ 건축 ■ 토목 ■ 플랜트</p>		<p>공종별 시장 비중</p>  <p>플랜트, 20.3%</p> <p>토목, 22.9%</p> <p>건축, 56.8%</p> <p>■ 건축 ■ 토목 ■ 플랜트</p>	
건축	57.1	건축	56.8
토목	22.9	토목	22.9
플랜트	20.0	플랜트	20.3

[출처 : IHS Markit(2020. 4)],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주택)** 주택 분야가 54.1%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시장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 3.0%에서 -2.1%로 조정되었으나 비중은 이전 전망치 대비 0.3% 증가함
 - 2019년 건축공종 수주비중은 22.0%(49.1억불)로 올해 1분기까지도 22.1%(24.8억불)로 양호한 실적 기록
- **(토목)**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토목 시장 성장률은 1.4%로 3개 공종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019년 우리기업의 토목 수주비중은 20.3%(45.4억불)이었으나, 올해 1분기 비중은 소폭 감소한 17.0%(19.0억불)로 나타남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1. 거시지표

- (GDP 성장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Pandemic) 영향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정책에 따라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전망치 또한 대폭 하향되고 있음

-지역/국가별 20년 GDP 성장률 전망치 -

지역/국가	기관	전망치	주요내용
글로벌	IMF	-3.0%	1월 대비 -6.3%, 19년 10월 대비 -6.4% 하향 조정
	Oxford Economics	-2.8%	1월(2.2%) 대비 -5% 하향 조정. 3분기까지 각국의 봉쇄정책이 이어지면 -8%까지 하락 가능하며, 실업률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J.P. Morgan	-1.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높아 추가 하락 예상
	UBS	-0.7	가장 긍정적 전망. GFC에 비해 은행부문의 피해가 적어 역사상 가장 빠른 침체(2분기) 될 것
	FITCH	-1.9%	기존 전망치(2.5%) 대비 -4.4% 하향 조정
선진국	IMF	-6.1%	1월 대비 -7.7%, 19년 10월 대비 -7.8% 하향 조정
신흥국	IMF	-1.0%	1월 대비 -5.4%, 19년 10월 대비 -5.6% 하향 조정
한국	한국은행	1% 미만	1Q 성장률 -1.4%, 코로나19 확산세가 2Q 중 진정되어 3Q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경우를 가정
	IMF	-1.2%	
	한국경제연구원	-2.3%	설비투자 감소(-18.7%), 민간소비 감소(-3.7%)로 인해 IMF 이후 첫 역성장 전망
미국	IMF	-5.9%	1월 대비 -7.9%, 19년 10월 대비 -8.0% 하향 조정
	PIMCO	-5%	실업율도 20%까지 상승 가능
	FITCH	-3.3%	기존 전망치(2.0%) 대비 -5.3% 하향 조정
중국	국가통계국		1Q 성장률 -6.8%, 경제성장률 발표(1992년) 이후 2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
	IMF	1.2%	1월 대비 -4.8%, 19년 10월 대비 -4.6% 하향 조정
	FITCH	1.6%	기존 전망치(5.9%) 대비 -4.3% 하향 조정
일본	IMF	-5.2%	1월 대비 -5.9%, 19년 10월 대비 -5.7% 하향 조정

	이코노미스트지	-5%	소비세인상('19.10) 여파로 4Q19 성장률이 -1.8%인 상황에서 올림픽 연기만으로도 -1.6%의 경제의 역성장 가능한 상황에서 일본 GDP의 45%를 차지하는 수도권(Greater Tokyo area) 폐쇄조치(lockdown)가 장기화 되는 경우 -5% 까지 하락 가능
	FITCH	-2.7%	기존 전망치(0.4%) 대비 -3.1% 하향 조정
	IMF	-7.5%	1월 대비 -8.8%, 19년 10월 대비 -8.9% 하향 조정
EU	IFO 거시경제 조사센터	-4.2% (독일)	2018년(+1.5%), 2019년(+0.6%) 소폭 성장했으나, 소비와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2Q 성장률은 -10%로 1970년 분기성장을 작성 이후 가장 나쁜 것. 실업률도 10.5% 전망 2021년에는 회복(+5.8%)될 것으로 전망
	프랑스 중앙은행	-2.2% 미만 (프랑스)	1Q 성장률을 -6%로 전망. 2020년 연간으로도 1945년 이후 최악이었던 2009년(-2.2%)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출처 : 3월 이후 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내용 취합/정리

- IMF에서는 '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며,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 신흥국 경제는 인도(1.9%), 중국(1.2%)의 선전으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선진국은 EU(-7.5%), 영국(-6.5%), 미국(-5.9%) 모두 큰 폭으로 하락 예상

*IMF의 통계 제공(1980)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종전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 추이 -

기준년도	'18	'19(E)	'20(F)	'21(F)
세계경제 성장률	3.3%	2.9%	-3.0%	5.8%
선진국경제 성장률	2.2%	1.7%	-6.1%	4.5%
신흥국경제 성장률	4.5%	3.7%	-1.0%	4.0%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Update ('20.4)

- 美 연준의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 북)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5.4% 감소했으며, 소매매출은 -8.7% 감소했음. 이는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더 안좋아질 가능성을 시사. 美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는 2Q GDP 성장률을 -12%로 전망

- 블룸버그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2Q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미국 -26%, 캐나다 -28.1%, 이탈리아 -12.1%, 영국 -11% 등 역성장이 심각했음. G20의 2Q 성장률은 -11%로 전망
- EY한영이 전 세계 2,9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자본 신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21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후 경기가 회복하는 U자형 경제 회복을 예상했으며, 38%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하는 V자 회복을 예상

IMF의 경제 성장률 추가 조정 가능성 높음

IMF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을 1.2%로 전망했으나, 1분기에 -6.8%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이 연간 1.2%를 성장하려면 남은기간 동안 성장률이 전년대비 약 4.4%를 달성해야 함. 그러나 2Q 성장률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IMF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 높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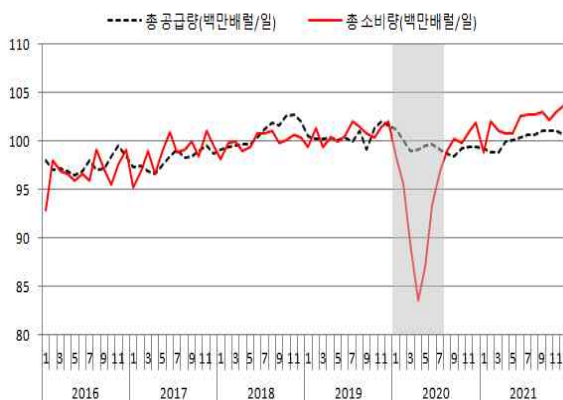
한국도 -1.2%를 전망하고 있으나, 1분기에 -1.4%의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남은기간 동안 +0.2%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역시 추가 하향조정될 가능성 있음. (블룸버그에서는 2Q 성장률을 -0.2%로 전망)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시장도 Lockdown 영향으로 2Q 성장률이 최악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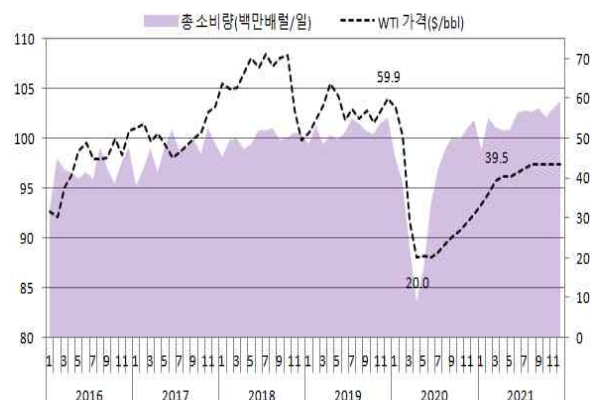
- (국제유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년 유가는 소비위축·저성장 등 하방요인이 감산합의 및 소비반등 등 상승요인 보다 커 전년대비 급감한 30불 안팎 예상(WIT기준/배럴당)

* 美IEA('20.4), '20년 WTI 29.34불/배럴(현물평균) 전망

- 세계 석유 공급 및 소비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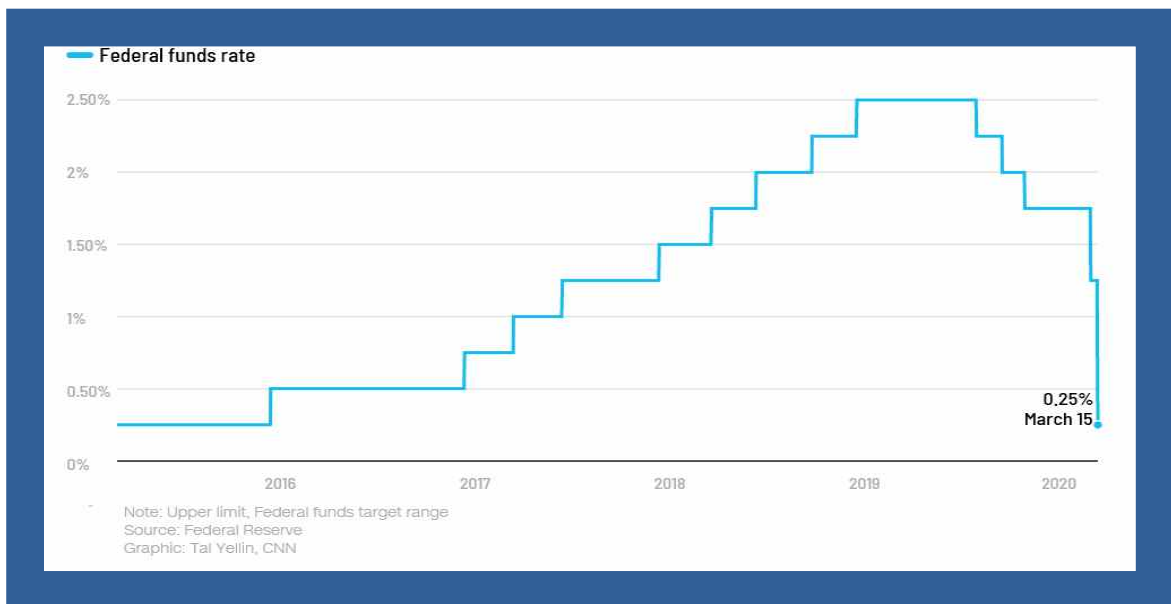


- 세계 석유 소비 및 유가(WTI) 추이 -



- (미국 기준 금리) 1.00~1.25%에서 0~0.25%로 1.00%포인트 인하(3.15)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가 3.15일(현지시간)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회의를 열고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25%로 1.00%포인트 인하

- 미국 기준 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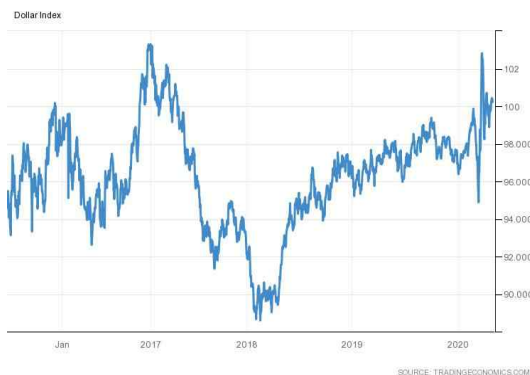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고용 극대화 및 물가 안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일반적으로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미국은 물론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영향이 건설투자로 이어질지 여부는 해당국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로 이어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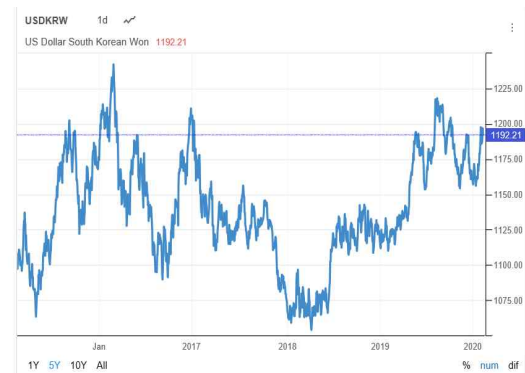
- **(환율)** 달러 인덱스(DXY, Dollar Index)는 4월초부터 98~1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 원/달러 환율은 1,200~1,240원선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
-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 수주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프로젝트 생애 주기(Life cycle)을 고려할 때, 계약 통화, 기자재 구입 등 비용지출시 통화의 종류 등 프로젝트별 상황에 따라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음
- 또한 유럽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 향상과 관련하여 인도 내 엔지니어링 센터 운영을 통한 원가 절감과 더불어 유로화 약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주요 환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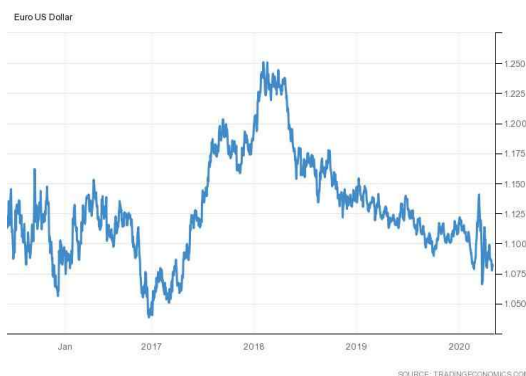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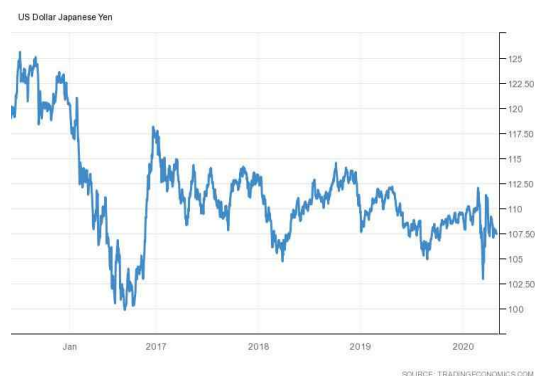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달러유로 환율]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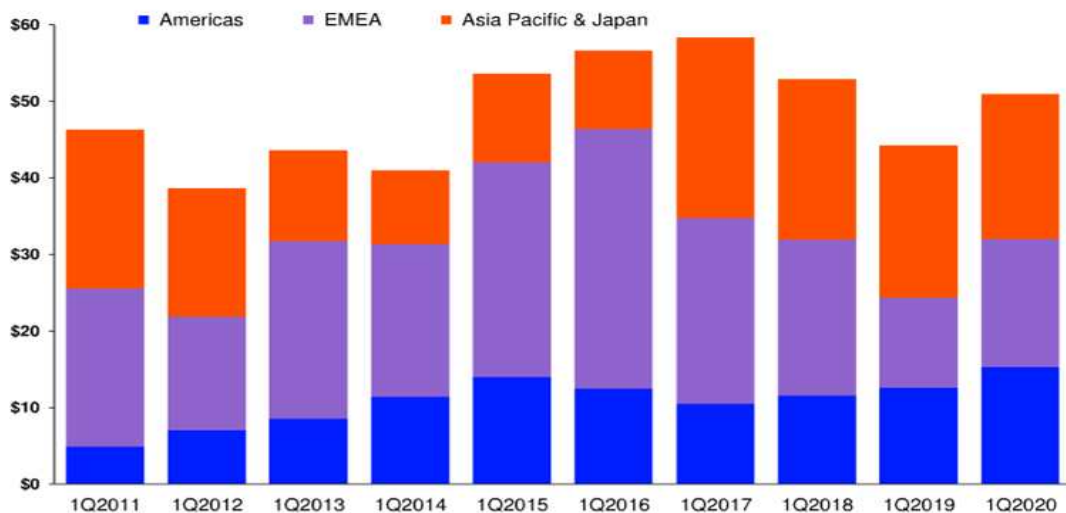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 2020년 1분기 프로젝트 Loan 시장의 규모는 509억불로 위축됐던 19년 1분기에 비해서는 15% 증가했으나, EMEA 지역의 프로젝트가 많았던 15~18년 1분기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출처: PFI, 1Q 2020 League Table)

- 최근 10년 1분기 Loan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 십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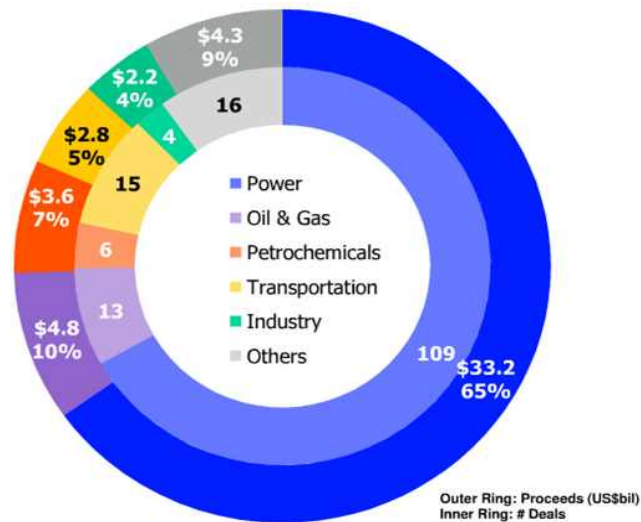


* 출처 : PFI, 1Q 2020 League table

- (미주) 19년 1분기 대비 21% 증가한 153억불(52개)로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 북미가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한 27개 프로젝트 128억불로 전체의 83.8%를 차지
- (EMEA) 19년 1분기 대비 43% 증가한 167억불(57개)을 기록. 발전분야 프로젝트가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한 110억불(43개)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을 주도
- (아태) 아시아 태평양과 일본이 189억불로 전체 글로벌 Loan 시장을 주도. 아태지역도 29억불 규모의 Changfang 풍력발전 프로젝트(대만)를 비롯해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발전분야 프로젝트가 122억불(28개)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을 주도
- 공종별로는 발전분야가 332억불(109개)로 6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O&G가 48억불(13개), 석유화학이 36억불(6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섹터별 Project Loan 규모 추이 -



* 출처 : PFI, 1Q 2020 League table

- 전년 동기대비 발전(56%), 석유화학(2,802%), 산업(188%), 통신(326%) 분야는 증가했으며, O&G(-53%), 교통(-61%) 등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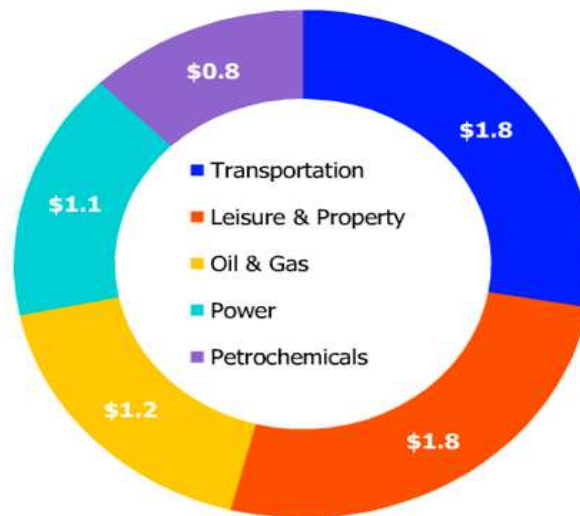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섹터별 Project Loan 규모 -

Project Finance Sector	1/1/2020- 3/31/2020		1/1/2019 - 3/31/2019		YoY % Chg.
	Proceeds (US\$Mil)	No. Issues	Proceeds (US\$Mil)	No. Issues	
Power	33,157.7	109	21,203.1	109	56% ▲
Oil & Gas	4,821.3	13	10,190.0	14	-53% ▼
Petrochemicals	3,618.9	6	124.7	2	2802% ▲
Transportation	2,781.0	15	7,196.6	27	-61% ▼
Industry	2,223.8	4	771.0	4	188% ▲
Telecommunications	1,475.2	5	346.0	2	326% ▲
Leisure & Property	1,130.6	4	2,057.5	8	-45% ▼
Water & Sewerage	1,080.7	3	958.7	8	13% ▲
Mining	630.0	4	1,388.2	3	-55% ▼
Industry Total	50,919.2	162	44,235.8	177	15% ▲

* 출처 : PFI, 1Q 2020 League table

- 2020년 1분기 프로젝트 Bond 시장의 규모는 66억불로 19년 1분기에 비해 -33% 감소
 - (미주) 21.6억불로 67.7억불이던 19년 1분기 대비 -68% 감소
 - (EMEA) 38.8억불로 16.4억불에 불과했던 19년 1분기 대비 136% 증가
 - (아태) 6.1억불로 15.7억불이던 19년 1분기 대비 -61% 감소
 - 공종별로는 교통과 레저&프로퍼티 분야가 각각 18억불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O&G, 발전, 석유화학 순이었음

- 섹터별 Project Loan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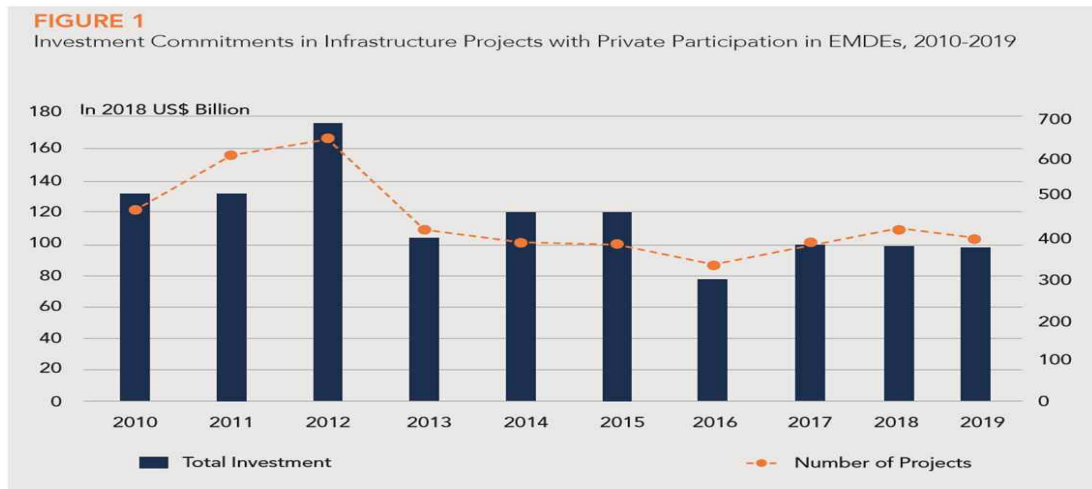


* 출처 : PFI, 1Q 2020 League table

3. 글로벌 PPP 시장 동향

- 2019년 에너지, 교통, ICT, 수자원,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등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 약정된 민간금융의 규모는 총 960억 달러(62개국 409개)로 2018년 대비 -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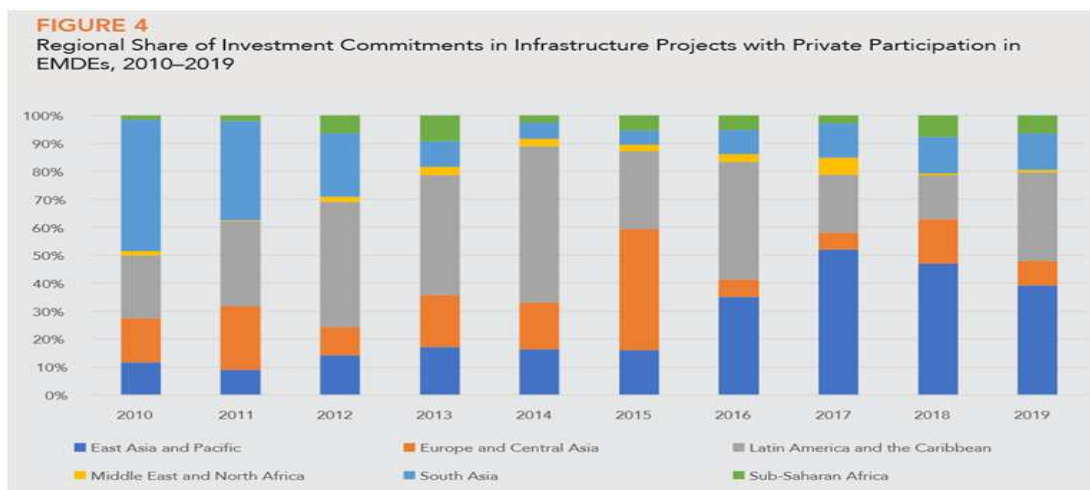
- EMDE 지역 PPI 투자 추이 -



* 출처 : WB, PPI 2019 Annual Report

-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EAP)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투자 비중과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LAC)에서 크게 투자가 확대됐으며,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ECA)은 하락했고, 남아시아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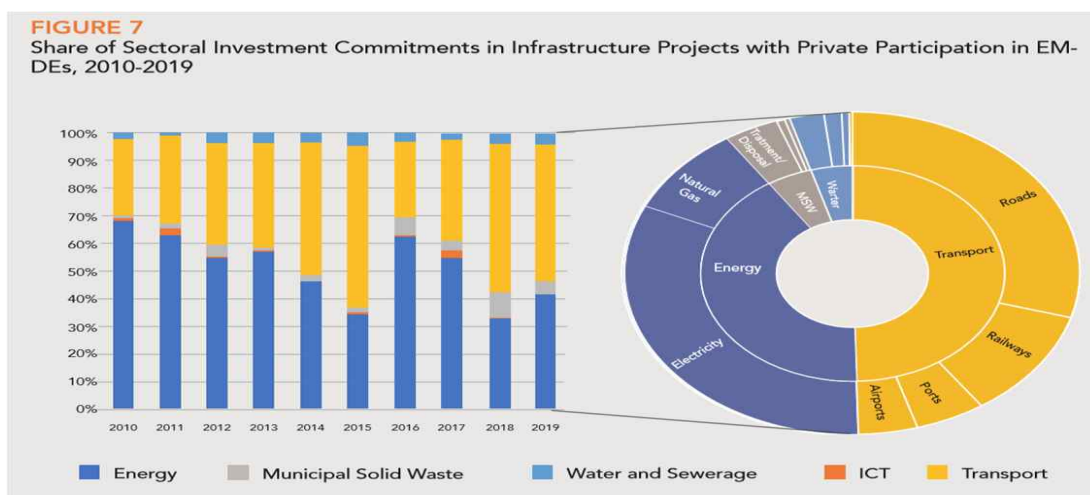
- 지역 PPI 투자 현황 -



* 출처 : WB, PPI 2019 Annual Report

-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가(18개국)는 29개 프로젝트에 88억불의 민간 투자를 기록
 - * 최근 10년 중 2012년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
- 2018년 전체 PPI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교통부문이 2019년에도 절반을 차지하며 추세를 이어감. 에너지 및 수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작년보다 각각 22% 및 5%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 포함된 도시고형 폐기물은 전체 인프라 투자의 2%를 차지

- 섹터별 PPI 투자 현황 -



* 출처 : WB, PPI 2019 Annual Report

-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136개로 전체 150개의 발전 프로젝트 중 90%를 차지.(투자 규모는 전체의 62%, 용량은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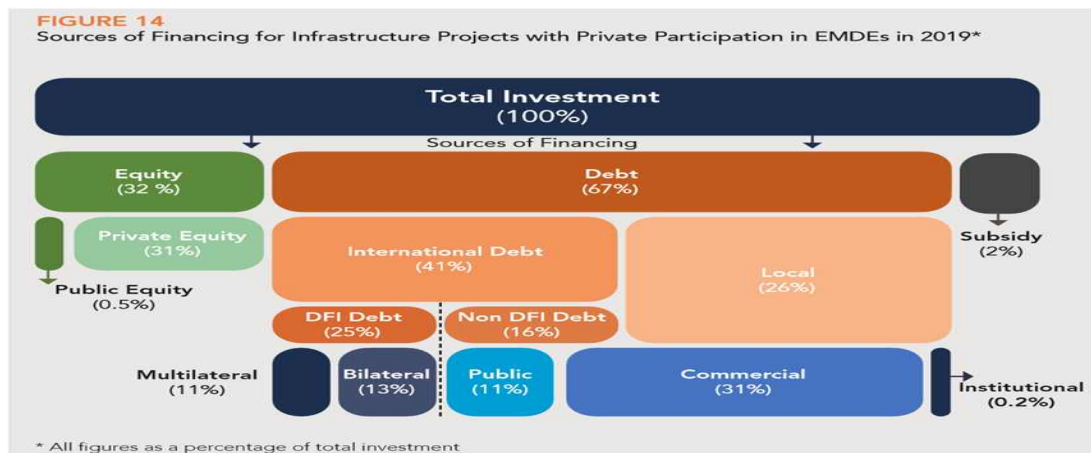
- 발전프로젝트 중 재생에너지 비중 -



* 출처 : WB, PPI 2019 Annual Report

- 파이낸싱 정보가 입수 가능한 투자금액 중에서는 민간자금이 전체 투자의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공공자금의 비중은 13%로 2018년(17%)에 비해 감소했으며, 다자 및 양자간 개발 및 수출금융기관(DEFI)은 25%의 자금을 조달하며 2018년(19%) 대비 증가
- 전체 투자 금액 중 67%는 Debt Financing 이었으며, 이 중 46%는 상업성 금융이었으며, 20%는 양자, 17%는 다자간 제공자로부터 조달. 국제금융을 통한 조달이 전체의 6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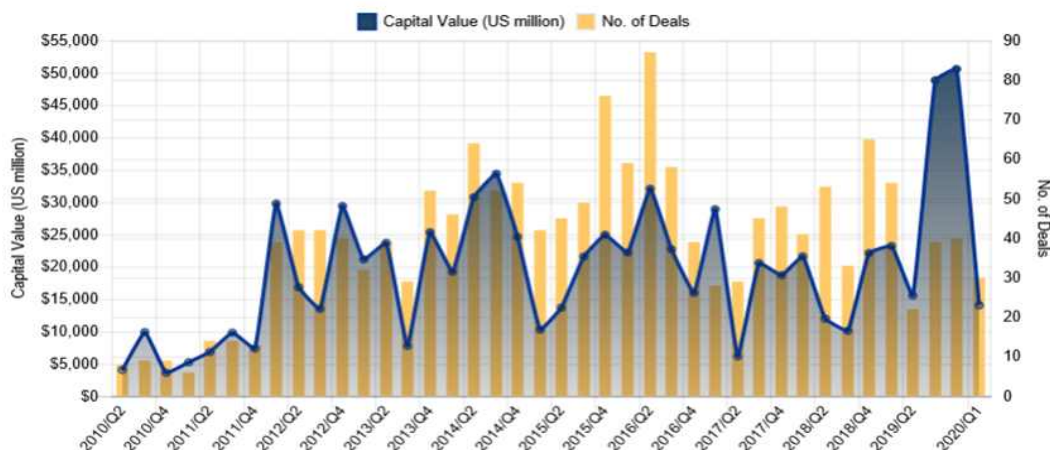
- Financing MIX -



* 출처 : WB, PPI 2019 Annual Report

- (Infra PPP) 2020년 1분기 낙찰/계약된 프로젝트 규모는 약 141억불(30건)로 전분기(506억불) 대비 -72%, 전년 동기(232억불) 대비 -39% 하락

- 최근 10년 프로젝트 투자 추이 (분기별) -



* 출처 : Infra PPP (20.4.24 기준)

주) Infra PPP 데이터베이스는 2010년부터 데이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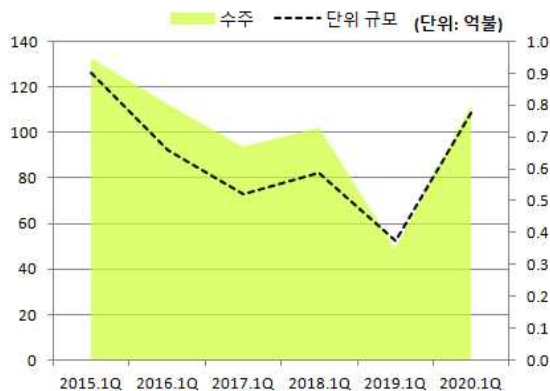
III.

해외 수주실적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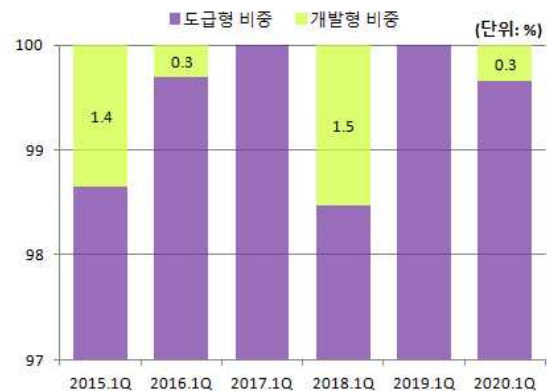
1. 수주추이 및 특징

- (추이) 2020년 1/4분기 해외건설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완전한 반등 추세
 - * 총 수주액/총 건수
- 1/4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112억불로 2019년 동기 약 49억불 대비 약 2.3배 증가
- 수주 프로젝트 단위 규모도 2019년 약 0.4억불에서 2020년에 약 0.8억불로 증가해 대형화
- (특징) 최근 5년간 1/4분기 평균 수주액은 약 94억불로 도급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반등세 뚜렷
 - 2020년 1/4분기 단위 프로젝트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형 공사 수주 패턴으로 전환되었으며 대기업 수주비중 증가* 추세
 - * 대기업 수주비중 추이: 2019.1Q 79.3%→2020.1Q 97.7%
 -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비중은 소폭 증가(2019.1Q 0%→2020.1Q 0.3%)했으나 코로나 19로 위축된 세계 경기흐름 속에 투자 프로젝트 진출 확대 필요

- 지난 5년간 1/4분기 해외건설 수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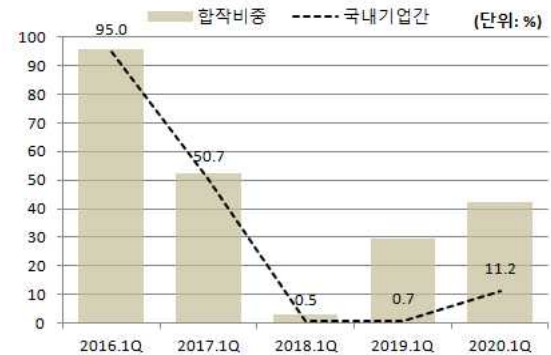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1/4분기 발주형태별 수주 추이 -



2. 지역별 수주 동향

- (중동) 2020년 1/4분기 중동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반등 추세로 국내외 기업간 협력진출도 다시 증가 추세

- 1/4분기 수주액은 67억불로 전년 대비 8.8배 이상 급증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0.4억불→6.1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1Q 30%에서 2020.1Q 약 42%로 증가추세(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도 0.7%→11.2%로 급증)
- 지난 5년간 1/4분기 중동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1/4분기 중동지역 합작비중 추이 -



- (아시아) 2020년 1/4분기 아시아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회복 추세이며 국내외 기업간 합작비중도 증가

- 1/4분기 수주액은 41.6억불로 전년 대비 37.7%p 증가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중형화(0.4억불→0.5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1Q 8.1%에서 2020.1Q 약 60%로 급증(하지만, 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은 2.4%→1.1%로 감소)
- 지난 5년간 1/4분기 아시아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1/4분기 아시아지역 합작비중 추이 -



- **(신흥시장)** 2020년 1/4분기 신흥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나 국내외기업 합작비중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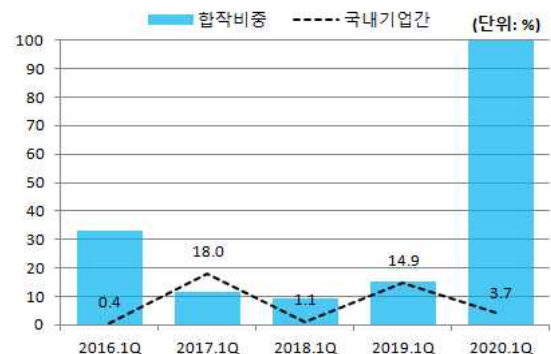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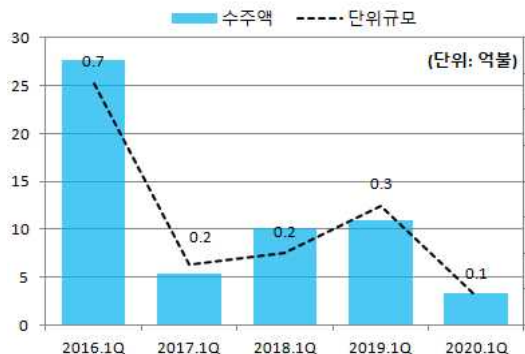
* 북미·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 1/4분기 수주액은 3.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0%p 감소했으며 특히 유럽 지역은 130.4%p 급감

* 전년 동기 대비 북미·태평양 81.8%, 유럽 130.4%, 아프리카 34.8% 감소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1Q 15.4%에서 2020.1Q 100%로 급증(하지만, 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14.9%→3.7%로 크게 감소)

- 지난 5년간 1/4분기 신흥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1/4분기 신흥지역 합작비중 추이 -



- **(특징)** 2020년 1/4분기 중동지역 수주규모는 2019년 이 지역 총 수주액인 47.6억불을 이미 초과했으며 아시아지역도 전년 동기 수주액을 넘어서면서 회복추세

- 특히 도급형 수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중동지역 프로젝트 단위규모가 크게 증가(대형화)했으나 일부국가에 집중

* 사우디 아람코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프로젝트(18.5억불), 알제리 SONATRACH Hassi Messaoud 정유 프로젝트(16.6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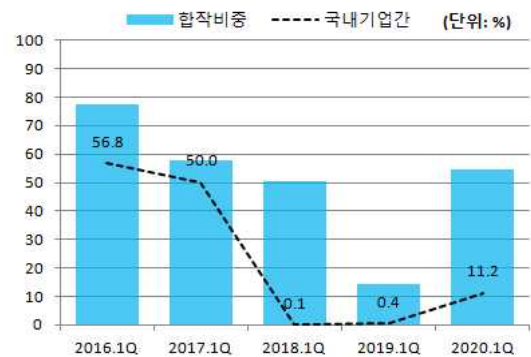
- 우리기업들은 중동지역에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협력(합작)패턴을 지향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서는 외국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1/4분기 중동지역 지명수의 수주비중이 11.4%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1%p 감소해 발주처 관리 및 개도국(중국, 인도 등) 대비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 지명수의 비중: 2018.1Q 46.4% → 2019.1Q 52.1% → 2020.1Q 11.4%

3. 공종별 수주 동향

- (플랜트) 2020년 1/4분기 플랜트부문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반등 추세로 국내외 기업간 협력진출도 다시 증가 추세
 - 1/4분기 수주액은 약 6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급증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0.7억불→3.5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1Q 14.2%에서 2020.1Q 약 54%로 급격한 증가추세(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도 0.4%→11.2%로 크게 증가)
 - 지난 5년간 1/4분기 플랜트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1/4분기 플랜트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토목) 2020년 1/4분기 토목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9년 이후 회복세로 대형화 및 외국 기업과 협력비중 급증 추세
 - 1/4분기 수주액은 1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0.7p% 증가했으며 단위 프로젝트 규모도 대형화 추세(0.8억불→3.2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1Q 23.4%에서 2020.1Q 약 90%로 급증(하지만, 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4.4%→0.2%로 급감)
 - 지난 5년간 1/4분기 토목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1/4분기 토목부문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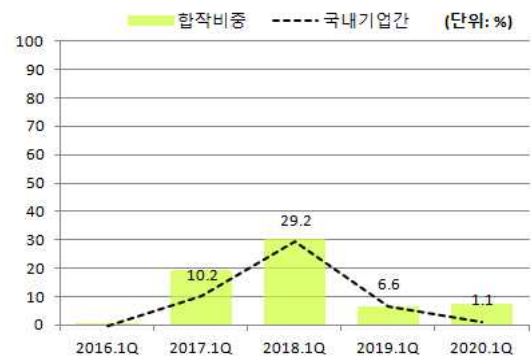
- (건축) 2020년 1/4분기 건축 수주규모는 2018~2019년 수준으로 대형화되고 있지만 단독진출 추세

- 1/4분기 수주액은 24.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1%p 증가했으나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1Q 6.6%에서 2020.1Q 7.5%로 소폭 증가(하지만, 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6.6%→1.1%로 급감)

- 지난 5년간 1/4분기 건축 수주 추이 -



- 지난 5년간 1/4분기 건축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특징) 2020년 1/4분기 플랜트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반등세로 전반적인 대형화 추세이며 합작비중도 증가세

- 특히 플랜트 프로젝트 단위규모가 크게 증가(대형화)했으나 석유&가스 부문에 집중

* 석유&가스부문 비중: 2018.1Q 37.2% → 2019.1Q 12.4% → 2020.1Q 34.1%

- 우리기업들은 플랜트부문에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협력(합작)패턴을 지향하고 있으며 토목부문에서는 외국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1/4분기 지명수의 수주비중이 전반적인 감소세로 특히 플랜트 부문 지명수의 수주비중이 18.3%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p 감소해 발주처 관리 및 기획·제안 프로젝트 피력 필요

* 플랜트 지명수의 비중: 2018.1Q 17.6% → 2019.1Q 68.8% → 2020.1Q 18.3%

IV.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4분기 수주실적은 전년 동기의 2.3배로 수주반등 모멘텀 지속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이상)*** 및 **해외건설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확대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해외건설현장의 특성 및 현 비상사태를 감안해 조속한 처리 필요
 - ** 4월 말 기준,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증빙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투자가 집중된 중국, 베트남 등 약 8개국 수준(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3개국으로 집계)
-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하반기에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유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 도로, 병원 PPP 프로젝트 제안 및 진출 교두보 마련*** 필요
 - * 이머징 마켓 가운데 대외부채 및 정부 부채 리스크가 적은 국가(현재 IMF에 자금지원 신청 국가는 약 90개국)를 선정, **재외공관 원격 외교 및 온라인 홍보**(방역, 의료시스템, Drive Through, 친환경 발전소 등 융합 이미지)를 통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ODA(유·무상 원조) 증액 및 연계 진출**** 활성화 필요
 - * 해외건설시장 가운데 아시아지역이 유일하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파이 역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 **K-방역 이미지** 및 우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보건·의료 인프라를 중심으로 영역 확대**
- 최근 유가 폭락에 따른 **중동지역** 발주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 상승기에 대비한 선제적 발주처 관리***가 요구됨
 - *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비대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IT기업과 연계한 **온라인/원격 유지보수 체계** 마련 및 정부 지원 필요